

2024 유럽청년수도 겐트,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 혁신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유럽청년수도(European Youth Capital: EYC)는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이 매년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1년간 청년 참여, 청년 권리, 도시정책 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이다. 2009년 로테르담(Rotterdam)을 시작으로 2024년 겐트(Ghent), 2025년 르비우(Lviv), 2026년 트롬쇠(Tromsø), 2027년 파르마(Parma) 등으로 이어지며 유럽 도시들의 청년정책 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청년수도는 단순히 1년짜리 청년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을 정책 수혜자에서 도시 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도시 전체를 청년정책의 실험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럽청년수도의 특징과 2024년 선정 도시인 벨기에 겐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도시를 청년정책의 실험장으로

도입 배경과 목적

유럽청년수도는 2004년 ‘로테르담 선언(Declaration of Rotterdam)’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유럽청년포럼 총회에서 공식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당시 결의안은 유럽의 청년정책 목표를 지역(Local) 단위에서 실현하고, 유럽 기구와 로컬 거버넌스 간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고자 유럽청년수도 도입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행정 전반에 청년의 관점을 투영하고, 나아가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청년수도 선정 기준: 참여를 넘어선 공동 의사결정

유럽청년수도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공동 의사결정(Co-decision-making)’ 구조이다. 유럽청년포럼은 최근 유럽청년수도 평가체계를 개편하며 청년을 단순한 ‘참여’의 주체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지원자’에서 나아가 청년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재정의하였다. 2025년 12월 2일 발표된 ‘2029년 유럽 청년수도’ 모집 공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동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이다. 청년이 프로그램 설계부터 예산 집행,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핵심 주체여야 한다. 공동 의사결정은 지자체와 청년 조직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는 지자체가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여 청년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유럽적 차원의 연계성 확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유럽 전체의 공동 의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유럽청년수도의 정책 도구(Policy Toolkit) 등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이 유럽의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계획의 완결성과 신뢰성이다. 청년정책 현황 진단부터 목표, 프로그램, 기대효과가 논



2029 유럽청년수도 모집공고(좌), 유럽청년수도 지정도시 현황(우)

출처: European Youth Capital, European Youth Forum(<https://www.youthforum.org/topics/youthcapital>)

전은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전환하는 것에 있었다.

‘WE ARE THE CITY’ 추진 전략

겐트의 유럽청년수도 추진체계는 혁신적 거버넌스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시정부의 청년 및 교육(Youth & Education) 부서가 총괄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은 15~30세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Young Board)가 주도하였다. 청년이사회가 예산 배분과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역할이 재편되었다.

겐트시는 유럽청년수도 전용 예산으로 약 400만 유로를 편성하였고, 매년 약 3,000만 유로 규모의 상시 청년정책 예산을 연계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 예산에는 청년공간 조성 및 개보수, 청년단체 지원, 참여 프로젝트,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Erasmus+ 등의 국제기금과 민간 후원을 결합해 재원구조를 다각화하였다. 다시 말해 유럽청년수도는 일회성의 특별예산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청년정책 인프라 위에 1년간의 집중 프로그램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겐트는 유럽청년수도 비전을 ‘WE ARE THE CITY’라는 슬로건으로 압축하고, 참여·다양성·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Engage),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Empower), 돌봄(Care)의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겐트의 유럽청년수도 3대 목표

목표	주요 내용	관련 의제
참여 (Engage)	청년의 의사결정, 자원봉사, 정치 및 사회 참여 확대	시민성 함양, 기후 행동, 불평등 해소 등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 (Empower)	청년에게 물리적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	공공공간 활용, 이동권 보장, 창작 및 실험 기회 제공 등
돌봄 (Care)	청년의 삶의 질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포용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빈곤, 안전,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등

출처: GHENT(2021, p.19)

리적인 서사로 연결되어야 하며, 청년 참여의 진정성과 거버넌스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 지원이다. 유럽청년수도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4~5년 이상 지속되는 도시 혁신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견고한 지지 기반과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이다.

겐트의 유럽청년수도 추진 전략

대학도시를 넘어 ‘청년이 설계하는 도시’로

겐트는 벨기에 플란데런 지방의 대표적 청년도시이다. 인구 26만여 명 중 35세 미만이 약 12만 3,000명(약 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8만 명의 대학생이 도시의 문화와 경제, 일상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겐트는 1990년대부터 도시계획, 공공공간,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전반을 연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벨기에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아동·청년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청년공간 확충과 청년단체 지원 등 탄탄한 정책 기반을 다져 왔다.

청년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2024 유럽청년수도 도전

겐트가 공식적으로 2024 유럽청년수도에 도전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기존 청소년 중심 정책을 성인 초년층까지 확대하여 생애 전환기 청년을 포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의 관심사가 기후변화에서 정신건강, 불안, 불평등의 문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 실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25년간 축적된 청년정책을 재점검하고 유럽 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넷째, 2024년 유럽연합(EU) 이사회 벨기에 의장국, 유럽의회 선거(만 16세부터 투표 가능) 등과 맞물려, 청년을 민주주의 의제의 전면에 세우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적 타이밍도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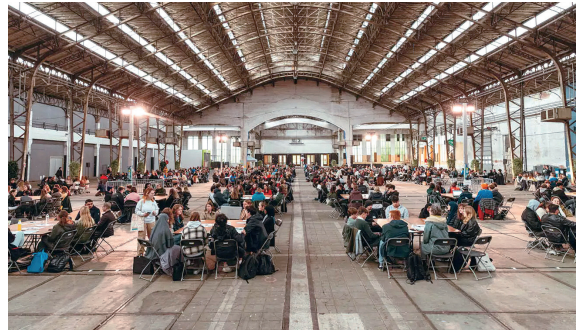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겐트는 2020년 유럽청년포럼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 11월 2024년 유럽청년수도로 최종 선정되었다. 겐트의 비



겐트 유럽청년수도 슬로건: WE ARE THE CITY

2024 유럽청년수도 겐트

출처: Ghent European Youth Capital 2024(<https://www.ghenteyc.eu/nl/>); European Youth Forum(<https://www.youthforum.org/news/ghent-they-are-the-city>)



청년들의 토론의 장(Big Debate)

청년 주도 도시정책 실험의 장: 브로이

유럽청년수도 겐트의 공간 전략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브로이(BROEI)’가 있다. 브로이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오픈하우스이자, 도시의 유희공간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점유하고 운영하는 실험적 플랫폼으로 작동하였다. 2018년에 시작된 브로이는 당초 겐트의 역사적 랜드마크인 ‘뒤벨스틴(Duivelsteen, 악마의 성)’에 위치하였으나,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Sluizeken-Tolhuis-Ham 지역의 폐창고(Nieuwland)로 옮겨져 임시 운영되고 있다.

브로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의 차원을 넘어 기술과 지속가능성, 자기계발과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표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단체와 개인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24 유럽청년수도 기간에는 겐트시 및 플란데런 정부와 협력하여 청년의 ‘공간 권리’와 ‘주도권’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청년공간의 필요성과 디자인을 논의하는 정책 실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F&B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무를 경험해 보는 연대 레스토랑과 청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실험 등이 대표적 사례다.

브로이는 2026년 리노베이션이 완료된 뒤벨스틴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임시 공간에서의 치열했던 실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

©a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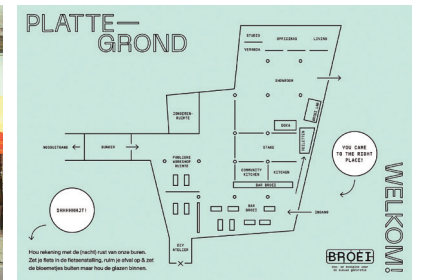


청년문화공간 브로이



브로이 전경

출처: BROEI(n.d., <https://www.broei.be/en/over-broei>)



브로이 배치도

나가며: 청년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향하여

의 집(House of Youth)’이라는 청년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브로이 사례는 청년공간이 물리적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간의 기능과 정체성을 함께 규정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개의 유럽청년수도 이니셔티브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조를 발전시켰고, 청년의 권리와 사회적 포용, 주거와 일자리, 기후·환경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의 영역과 의제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겐트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청년수도를 계기로 겐트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청년정책은 그 시대 청년세대의 특징과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겐트가 유럽청년수도로서 보여준 경험은 청년정책을 단일 부처나

개별 사업의 확장 차원이 아닌, 도시 운영 방식과 구조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겐트는 청년을 정책 대상에서 정책 주체로 전환하고, 공동 의사결정과 공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브로이와 같은 사례는 청년정책이 도시의 유희자원, 제도, 예산,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을 정책 과정의 참여 대상 존재가 아니라 도시의 일부를 책임지고 바꾸는 주체로서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도시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정책을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도구나 지역 활성화의 보조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공간 정책, 사회혁신과 연결된 핵심축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 확대를 넘어 청년이 실제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모델 도입, 청년친화적 공공공간 확보, 다양한 청년층을 포용하는 정책 설계, 장기적 정책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유럽청년수도 겐트는 하나의 도시가 청년을 미래의 잠재적 자원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 파트너로 대하는 순간, 도시의 공간과 정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의 청년친화도시 모델 수립과 지역별 청년정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BROEI. (2025). BUILDING BRIDGES & CLIMBING FENCES DIT WAS DE 5DE EDITIE VAN BROEI.
- 2 BROEI. <https://opencall.broei.be/>
- 3 BROEI. (n.d.) INFOBROCHURE 2025. <https://www.broei.be/en/over-broei>
- 4 European Youth Forum. (2018). Ten Years of Boosting Vibrant Youthful Cities.
- 5 European Youth Forum. (2025). European Youth Capital Call for Applications 2029.
- 6 GHENT. (2021). WE ARE THE CITY. EUROPEAN YOUTH CAPITAL 2024.
- 7 Ghent European Youth Capital 2024. <https://www.ghenteyc.eu/nl/>
- 8 Ghent, European Youth Forum. <https://www.youthforum.org/news/ghent-they-are-the-city>
- 9 European Youth Capital, European Youth Forum. <https://www.youthforum.org/topics/youthcapital>